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2 02. 14.(월) 총 3매(본문 1, 사진 2)			
담당 부서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담 당 자	• 과장 김형덕, 사건계장 김황년, 주무관 강영준 • ☎ (051) 410-1005, 1035, 1037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동해어업관리단 어린대게 포획, 유통 및 소지한 일가족 적발 - 아버지에 아들부부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일가족 검거 -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전우진)는 2022년 2월 14일 12시경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연중포획이 금지된 어린대게 유통·소지한 혐의로 A수산물 판매업체를 운영 중인 부부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 (사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 어린대게 포획 : 어업정지 1차 30일-2차 45일-3차 60일

A수산물판매업체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25일 어린대게 130마리를 수조에 보관하던 중 현장에서 활동 중이던 동해어업관리단 육상단속팀에 의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으며, 수조에 보관중이던 살아있는 어린대게 총 130마리는 어업감독공무원에 의해 강원 고성군 천진항 해상에 즉시 방류되었다.

이후 2022년 2월 14일 추가 조사를 통해 해당 업체는 아버지인 선장 A씨로부터 체장기준*에 미달되는 대게를 공급받고 아들 B씨의 활어차를 통해 유통해온 사실을 확인하여 불법어획물 포획, 유통 및 소지 혐의로 선장 및 아들부부 일가족을 검거하였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대게 포획 금지체장 : 9센티미터 이하

동해어업관리단 육상단속팀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어획물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지속적이고 입체적인 조사과정을 통해 해당 업체를 적발할 수 있었으며, 해당 일가족이 운영중이던 A수산물업체 및 위반어선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적극행정을 통해 수산자원관리에 힘쓸 것이라 말했다.

전우진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동해안의 주요 수산자원인 대게는

동해안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우리 어업인과 후손을 위해 암컷대게 보호는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하고, “연중 포획금지 어종인 암컷대게와 체장(두흉갑장) 9센티미터 이하의 어린대게에 대한 육해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깊은 수심에서 서식하는 대게는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고, 포획 후 방류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존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는 포획 즉시, 어획지점에서 해상방류 되어야 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김황년 계장(☎ 051-410-10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